

한국독립운동사의 이해

김 용 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독립운동이란 외세의 침탈로부터 주권을 지키고, 나아가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의 근대 민족(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운동이다.

아울러 독립운동의 기점은 외세의 현저한 침탈로 주권을 크게 훼손당한 시기에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나타나는 시기가 곧 기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군의 경복궁 구데타로 우리 정부가 전복된 1894년 갑오변란이 주권을 크게 훼손당한 시기이고, 이에 대항하여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 봉기한 안동의 서상철 의병이 바로 독립운동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세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온 시점을 독립운동의 종점으로 본다면 1945년 8·15 광복이 바로 그 때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정신이란, 주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주권을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국민주권의 근대민족(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독립운동가의 의지와 정신을 말한다.

2. 한국독립운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흔히 한국독립운동이 지닌 특성을 들라면, 지속성과 광범성, 근대성과 다양성, 투쟁성과 자기희생성, 그리고 세계성을 말한다. 한국민족은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훼손되자 결연히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1894년 갑오변란, 즉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를 계기로 봉기한 의병운동이고, 이로부터 독립운동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후 한말을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해방을 맞이하였다.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진 것이다.

한국독립운동의 특성 가운데 다른 하나는 지역적 광범성이다. 국내는 물론 국외 각지 한국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한말에 이미 중국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지역이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일제강점기 그 무대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독립군이냐 항일 빨치산의 활동 무대가 된 중국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해를 비롯하여 중국 관내지역도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특히 적지(敵地)인 일본에서도, 그리고 미주와 유럽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됨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의 무대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한국독립운동의 또 다른 특성은 근대성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독립운동은 대한제국시대의 전제군주국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국민국가 즉 민주공화국으로 새롭게 독립하려는 것이었다. 민족의 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으로 자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근대적 민주공화제로 수립되었음은 물론, 27년간의 존속기간 내내 민주 제도와 운영 절차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운동가들은 투쟁가이자 근대화운동가였던 셈이다.

운동 노선과 이념의 다양성 또한 한국독립운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항일 무장투쟁과 외교 독립운동, 민족문화운동과 민족경제운동, 그리고 농민·노동자·청년학생·여성 등 계층각층의 사회구성원들이 펼친 사회운동 등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갈구하였다. 이 같은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아나키즘 등 다양한 이념에 의해 지지(支持)되고 발현되었다.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즉 투쟁성이 강했다. 무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은 한말 국민적 의병전쟁을 거쳐 1920년대 만주·노령의 독립군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30·40년대 항일 빨치산투쟁이나 조선의용대(군), 한국광복군의 항일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에는 투쟁성의 상징으로 무장투쟁의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고, 무장투쟁은 여러 독립운동 노선과 방략의 원천이자 동력이기도 하였다.

자기희생 정신 또한 한국독립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주요한 운동 방략 가운데 하나가 의열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며 온 인류에게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족의 대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열투쟁은 암살·파괴·폭동이라는 공통의 투쟁 방식을 갖고 있지만, 테러와는 매우 다르다. 우선 목적부터 큰 차이가 있다. 테러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 혹은 단체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의열투쟁은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공영을 위한 것이다. 공격대상 또한 테러는 불특정 다수로 삼아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크지만, 의열투쟁은 침략 원흉이나 공공의 적 또는 식민기관이나 단체 등 소수로 특정 한다. 또한 의열투쟁은 정정당당하게 거사의 목적·이유·주체를 밝히지만, 테러는 그렇지 않다.

1895년 일본의 정치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하고 끝내 숨기고 있는 따위가 그것을 말한다. 불꽃처럼 한국독립운동을 이끈 의열투쟁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 숨긴 것이 없었다. 1910년대의 의열투쟁을 대표한 광복회의 경우에는 밝히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처단 이유와 투쟁주체를 밝힌 「고시문」을 현장에 게시하고 떠났다. 의열단도 거사를 결행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조선혁명선언」을 살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봉창·윤봉길 의거 직후 한인애국단도 선전문을 만들어 각국의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자신들의 거사임을 밝혔고, 그 구체적 사실을 『도왜실기(屠倭實記)』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의열투쟁은 인류의 공명을 얻고 그에 따른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의열투쟁은 역사 발전적이며 혁명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테러는 역사를 혼란과 함정에 빠뜨리고 후퇴시킨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반침략 평화주의를 실천적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상실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의열투쟁이 아니라 결국 테러나 마찬가지가 된다.

한국독립운동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세계성도 띠고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은 한국 민족의 독립만을 갈구하지 않았다.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제국주의시대에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도와 정의를 부르짖는 양심의 고고한 외침이었다.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며 인간의 도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인류가 지향해 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와 일맥상통하였다. 한국독립운동은 바로 이 같은 인간의 논리로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제국주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 것이다.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여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바로 을사늑약이다. 국가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자주적 통치권과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외교권으로 발현된다. 그런데 외교권을 강탈당하여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바로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립을 토대로 형성된 동양평화의 틀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 동양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광무황제가 헤이그특사를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여 한국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며, 한국의 독립이 동양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기초임을 널리 알리게 한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독립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의 기초’라는 주장은 그 당시에 설득력 있는 소리였지만, 열강에 둘러싸인 채 남북이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논리로 들린다.

안중근 의거는 이 같은 주장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안중근은 의거 뒤, 여순 법정과 감옥에서 직접 저술한 ‘동양평화론’을 통해 의거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토가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의 파괴자이기 때문에 처단하였다는 것이다. 즉 하얼빈 의거는 사사로운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권 회복과 동양평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주장한 것이다.

안중근은 동양 평화의 길은, “첫째 일본이 우선 한국의 주권을 되돌려 주고, 둘째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는 것이며, 셋째 그런 다음 서로 ‘독립한’ 청국·한국·일본이 동맹하여 서양세력을 방어하며, 서로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서로 화합하여 개화와 진보로 나가서 구주 및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립과 일제의 침략 야욕 포기가 동양평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동양에 평화가 깃들며 서구와의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동양평화에 대한 안중근의 신념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사형 순국 직전 “임석한 일본 관헌들도 모두 나와 같이 동양평화 만세 3창을 하자”고 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말 이미 ‘한국 독립은 동양평화의 토대이자 세계평화의 기초’라는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적 성격이 정립된 것이다.

특히 3·1운동을 통해 자유와 평화, 인도와 정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덕목을 세계에 전파하였다. 3·1독립선언서에서 민족대표들은, “전 인류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한 발동”으로 ‘한국의 독립국임과 한국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3·1운동은 “일본의 신의(信義)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의 의리(義理) 없음을 꾸짖으려하는 것도 아니다”고 하였다. 오직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 “임을 널리 알렸다.

이 같은 인간의 논리와 자유와 평화를 갈구한 3·1운동은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이 제국주의 압제 하에 신음하던 식민지·반(半) 식민지 국가와 민족이나 약소(弱小) 민족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리였다. 그야말로 이제 ‘위력(威力)의 시대는 가고 도의(道義)의 시대가 오고, 인도적 정신이 발흥’하여 신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변혁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3·1운동의 도도한 물결은 일제의 장벽을 넘어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중국 북경대학생의 5·4항일운동으로, 인도와 이집트의 반영 독립운동으로, 그밖에 필리핀의 반미 독립운동과 베트남의 반불 독립운동으로 퍼져 나갔다. 한국독립운동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제국주의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이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예언하지 않았던가.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성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퇴색하거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대로,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스트들대로 국제적 연대를 맺어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맹렬히 저항하였다.

이봉창·윤봉길 의거도 좋은 본보기이다. 이봉창 의거는 일제의 한국 침략과 9·18 만주사변의 원흉인 일왕에 대한 응징을 기도하여 온 인류에게 반(反)침략 평화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윤봉길 의거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일제는 만주를 장악한 뒤, 곧 바로 상해사변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침략하였다. 중국군이 맞서 싸웠으나 역부족이었고, 상해에 조계를 갖고 있던 열강들은 외교적 압력 넣기에 급급하였다.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은 상해를 점령한 뒤,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맞이하여 보란 듯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승전기념식을 열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승전기념식장의 단상을 물통 폭탄으로 일거에 날려버린 윤봉길 의거는 일제의 침략 행위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한국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지를 널리 알렸다.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곧 바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

하고 연합군을 지원하였다. 인도·미얀마 전선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여 정찰활동을 지원하고, 미군과 합작하여 국내정진작전을 추진한 것이다. 조선의용대(군)는 중국공산군과 합작으로 반(反)소당 작전을 벌여 일본군을 여러 차례 무찔렀다.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빨치산부대는 연해주로 들어가 소련군의 지원 아래 항일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모두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적 성격과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온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향한 한국독립운동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의열투쟁가들과 만주 독립군들의 희생, 독립운동을 아낌없이 지원한 재외동포들,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그리고 일제와 일상에서 맞섰던 민족대중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으로 명문화된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 약속은 이 같은 희생과 노력의 대가였다.

3. 한국독립운동은 언제 시작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국독립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근대에 들어와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민주국가를 세우는 일이 독립운동이라면, 그 시작과 끝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눈에 띄게 나라의 주권이 훼손된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그것에 격발하여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봉기가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 한계가 있지만, 1894년 갑오변란과 그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족 봉기가 바로 독립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침탈을 감행하던 일제는 1894년 7월 갑오변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내정개혁’을 압박하다가 경복궁에 침입하여 무력으로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상 외세에 의한 최초이자 마지막 쿠데타인 갑오변란(갑오왜란)이다. ‘내정개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의 자주적 통치권을 훼손하는 무례한 일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군대를 동원하여 정부를 전복한 일은 너무나 명백한 침략 행위였다.

주권 국가의 백성으로 외세의 쿠데타에 의해 정부가 무너지고 군주가 겁박을 당하는 현실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더욱이 ‘충효’를 목숨같이 여기던 유림의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해 8월 처음으로 청풍유생 서상철이 유림의 본고장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같은 해 9월에는 평안도 유생 김원교가 상원에서 ‘평안도 창의사’라는 이름으로 의병을 모아 싸웠다. 의병에는 양반 유생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김원교 의병에는 유생과 더불어 동학농민이나 포수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전주화약 이후 은인자중하며 전라도를 중심으로 집강소를 세워 폐정개혁에 집중하던 동학농민군도 갑오왜란 직후 재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봉준 공초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한 이유는 갑오변란으로 상징되는 일제의 주권 침탈이었다.

유생 중심의 의병이나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도 일제의 주권 침탈에 대한 항거, 즉 독립운동이었던 셈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듬해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극적 대사건을 계기로 더욱 증폭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이 의병이나 동학농민군 재봉기와 같은 무장투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한국독립운동을 관통하는 무장투쟁의 전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발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의 주체도 지배계층인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으로 대표되는 피지배 민중층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병 봉기와 동학농민군 재봉기로 시작된 독립운동의 파고는 점점 높아졌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은 전 민족적 독립운동의 실질적 발화점이었다. 을사늑약으로 자주적 외교권을 빼앗기고, 또 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간섭이 자행되자 온 겨레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

은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 전쟁은 격화되었고, 계몽운동은 애국적·구국적 성격을 더해 갔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 야욕을 꺾지 못하고, 결국 경술국치를 당하고 말았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제는 주권 지키기나 주권 되찾기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민족독립을 이루고 민주국가를 성립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독립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1910년대 독립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주로 비밀결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의병 진영에서는 주력부대가 만주·노령으로 옮겨간 뒤에도 미(未)해산 의병부대가 태백산·소백산 등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산발적이지만 3·1운동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항전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전쟁은 3·1운동으로 계승되면서 시위운동을 한층 격렬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계몽운동 진영에서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립학교가 경향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 계획·추진의 거점이 되고, 나아가 학생들이 3·1운동의 봉기와 시위운동에 앞장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와 함께 가장 1910년대적인 독립운동단체로 광복회의 활동도 있었다. 이는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계열이 합류하여 결성한 혁명적 독립운동단체였다. 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으로 분류하였던 국권회복운동이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로 방략과 이념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적으로 합류해 간 것이다. 이들 주체들은 중국의 신해혁명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세계관으로 공화주의를 확립하였고, 독립군 양성을 통한 독립전쟁을 지향하면서 군자금 모금과 친일파 처단 등 혁명적 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1919년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이러한 1910년대 독립운동 역량이 총결집되어 봉기한 것이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립, 만주 독립군단의 결성, 국내 비밀결사의 속출 등 수많은 독립운동 조직 또한 1910년대 독립운동의 기반 위에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민족총력항쟁으로 전개되었다. 3·1운동을 통해 성장한 광범한 민족역량이 바로 그 원동력이었다. 때문에 독립운동의 양적 발전도 극대화되었다. 3·1운동 이후 1920년 사이에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만도 1백여 개가 넘었으며, 전국 각처에 연통부와 교통국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이 생겨났다. 나아가 해외의 독립군 조직만도 1백여 개에 2만여 명의 독립군이 독립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이런 기반 위에서 독립전쟁사에서 길이 빛나는 1920년의 봉오동, 청산리대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의 농민·노동자·여성·학생층에 의한 각 부문운동과 사회·경제·문화 분야에서 전개된 다양한 운동까지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민족총력항쟁이었다.

1920년대는 독립운동 이념과 지도노선 등도 다양하게 추구되었다. 3·1운동을 거치면서 복辟(復辟)주의가 극복되고 공화주의가 정착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종결과정에서 제국주의의 반인륜적 과오를 반성하며 사회진화론 대신에 인도주의가 부상하였다. 인도주의는 한국민족에게도 급속히 부각되면서 3·1운동의 이념으로 집약되었고, 이어 민족운동의 논리로 확산되어 갔다. 나아가 사회주의·무정부주의가 민족사회에 수용·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이념은 정치적 지향을 달리 했지만, 일차적 목표가 민족독립에 있었으므로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1920년대 독립운동계의 지향은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으로 모아졌다.

특히 1927년 2월 국내에서 성립한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결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회는 1920년대 전반기부터 꾸준히 추구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바탕 위에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동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가장 1920년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간회는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 등을 지도하면서 국내 민족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국내 독립운동의 역량은 더욱 성숙되었고, 이 같은 배경 위에서 1929년 원산총파업·용천소작쟁의 등 대중운동과 전국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운동주체가 부르주아계급에서 노동자·농민·학생 등 민중층으로 전화(轉化)되고, 운동이념이 민족주

의에서 사회주의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세계대공황으로 일제의 군국파쇼체제가 강화되는 객관적 조건 아래서 전개되었다. 1931년 신간회 해체 이후 국내 독립운동은 학생운동과 농민·노동운동 등 대중운동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다. 농민층 몰락을 배경으로 고양된 대중운동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식민지체제의 타파를 지향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대중투쟁은 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 깊게 결합되어 있었다. 193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특징은 국학의 발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족문화말살에 대항한 국학수호운동은 독립운동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듯 1930년대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은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이 사회주의운동가들의 참여와 영향으로 정치투쟁, 즉 독립운동 혹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전개되었다.

1940년대 전반은 일제의 극악한 탄압에 의해 민족적인 것이 철저히 차단되고 봉쇄당하던 암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진 시기이기도 했다. 독립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1941년 12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은 곧 일제의 패망을 예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 8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며 여운형이 주도하여 국내에서 결성한 비밀결사 형태의 조직이었다. ‘건국에 대비하기 위해 주체세력을 조직적으로 준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조선건국동맹은 결성 이후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해 갔다. 아울러 조선건국동맹은 중경의 임시정부와 연안의 조선독립동맹과 연결을 도모하고자 연락원을 파견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을 추진하였다.

광복 직전인 1945년에는 통일전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조선독립동맹과의 교섭을 위해 김구가 직접 연안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국무위원 장건상을 연안으로 파견한 바 있었다. 이렇듯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광복의 날을 열었던 것이다.

4. 한국독립운동의 성과와 의의는 무엇인가?

반세기에 걸친 한국독립운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이 봉건백성에서 근대 국민으로 우뚝 섰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픈 만큼 강해지고, 고뇌한 만큼 성장한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은 고뇌에 찬 가시밭길 독립운동을 통해 봉건주의를 탈각하면서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 척사적 민족주의로 봉기한 의병전쟁은 점차 의병대중에 다양한 평민층이 참여하고, 해산군인들이 대거 가담함으로써 국민전쟁으로 발전하였다. 곧 반외세만이 아니라 반봉건의 기치를 함께 든 것이다. 물론 을사늑약으로 국망의 위기가 닥치자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어 민족대중의 민지(民智)가 발달하고 민족의식이 성장한 덕분이었다.

경술국치 이후 근대 국민으로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의병과 계몽주의자가 합류하여 이념과 전략을 공유하게 되고, 여기에 신해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10월혁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대 국민으로의 성장은 거족적이며 전국적인 3·1운동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 결실이 바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민주공화제’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결국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통해 봉건 백성인 ‘신민(臣民)’이 아니라 ‘자주적’ 근대 국민으로 성장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였다. 민주시민의 가장 큰 덕목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것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정치的基本이다. 즉 다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소통을 통해 최대공약수인 ‘민의’를 결집해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가치 편력을 거쳤다. 자유주의(민족주

의)와 사회주의, 아나키즘과 삼균주의 등의 세계관은 물론, 무장투쟁론·외교론·실력양성론·문화운동론 등 다양한 운동노선을 경험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 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숭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도 겪었지만, ‘대동단결’을 지향하며 통합과 연대를 이루었던 고귀한 역사적 경험도 쌓았다. 이 같은 다양한 민주적 실천은 우리 민족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켰고,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자 연원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이 또한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자 성과이다. 민주사회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종 사회단체나 조직 또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건실한 토대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통해 각종 단체와 조직을 구성하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한말 계몽운동 조직에서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다양한 이념의 독립운동 조직과 각계각층의 사회조직을 만들었다.

처음 구성원들의 권익투쟁에서 시작한 각종 사회단체의 사회운동은 점차 식민지 현실을 자각하면서 정치운동, 즉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청년학생·농민·노동자 등 민족대중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요인이 되었다. 나아가 민족대중의 일상 투쟁이 독립운동이 된 결정적 이유였다.

결국,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통해 봉건 백성에서 근대 국민(민족)으로 발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적 실천을 경험하고, 민족대중이 일상 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간 것이다.

한국독립운동의 의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1장 총강 제1조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1987년 10월 27일 제9차 개정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혀 놓았다. 또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였다.

3·1운동의 백미는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을 파리강화회의에 ‘청원’하지도, 국제열강에 ‘구걸’하지도 않았다. “오등(吾等)은 자(玆)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 함으로써, 스스로 독립국가와 독립한 민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정부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라 한 것은 대다수 동포가 일제의 노예상태에 있고, 국토를 일제에게 빼앗겨 망명 인사와 재외 동포들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임시로 세운 정부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아니라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했을까.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있지만, 황제가 주권을 오로지 하는 전제군주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의사로 보통선거를 통해 국가수반을 뽑아 ‘국토를 보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뽑아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게 하는 민주국가의 시민이 된 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이보다 더 큰 역사적 의의가 있을까.

또 하나의 의의는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독립운동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할 땅을 순순히 내주지도 않았고, 흔쾌히 도와주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었지만, 우리 민족은 조국광복의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쳤다. 각계각층의 민족대중이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수용하고, 독립운동 지도기관을 만들고 각종 사회단체를 결성하여 광복의 날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룬 광복은 온 겨레가 역동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성과이자 결실이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토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07.
-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13.
-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2007.
-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도서출판 해안, 2003.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의 인물과 노선』, 한울아카데미, 2004.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8(농민운동), 독립기념관, 2009.
- 김용달, 『일왕 궁성을 겨누는 민족혼 김지섭』, 지식산업사, 2011.
- , 한국독립운동의 시기별 특징, 『한일관계사연구논집』 제9집, 2005.
- 김용달, 「광복 전후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의 국가건설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6집, 독립기념관, 2013.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의열단과 의열투쟁의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9집, 독립기념관, 2014.